



Kunhwa Project

필리핀 세부 BRT

해외 BRT 설계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

세부 BRT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교통 분야 수출사례로, IT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화는 설계와 감리를 책임지며 유기적으로 소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화는 해외 BRT 설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의 위상을 해외에도 알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물라 지열발전소

지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전문 기술



사물라 발전소는 건화 에너지·환경사업부의 해외 대형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외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열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지열에너지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발전용량 7200MW를 지열로 충당해 세계 1위의 지열발전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Kunhwa News

사우디 NWC 사업 합동 워크숍 (발주처 NWC + 건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Recovery Plan 워크숍을 통해 세부사항이 확정되었고, 계약 금액 증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수주한 사우디 수도공사(NWC) 상하수도 확장 설계 사업에서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화의 홍경표 회장을 비롯해 사우디 법인장과 사업부서 4명이 참석하였으며, 발주처 NWC에서는 Mansour M. Abulnain 부사장과 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건화, 사우디 토목 설계 수주 확대...“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건화, 사우디 토목 설계 수주 확대...“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Recovery Plan 워크숍을 통해 세부사항이 확정되었고, 계약 금액 증액에 합의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수주한 사우디 수도공사(NWC) 상하수도 확장 설계 사업에서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화의 홍경표 회장을 비롯해 사우디 법인장과 사업부서 4명이 참석하였으며, 발주처 NWC에서는 Mansour M. Abulnain 부사장과 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수도공공기술공사(WTCO)로부터 '전력 배수지 연구'를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2단계 사업(설계비 55억)을 수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초에는 사우디 수도공사(NWC)의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 설계 사업(설계비 1016억)을 따낸 바 있으며,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2월에 사우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 연계된 다양한 인프라 및 토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우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건화, 건설사업관리단장 워크숍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제주 조선히 호텔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날 열린 발표에서는 김영근 전략기획실장의 발표로 2024년 건화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본부 박웅섭 본부장의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프로젝트 소개가 있었습니다. 사업 배경 및 계약을 시작으로 과업 개요와 조직 구성, 과업 수행 현황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현지 협력업체의 설계 능력 및 수행 신뢰성과 같은 기대효과와 시사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힘쓰고 있는 수도사업본부 임직원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사우디 법인의 소식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승우 건설사업관리단장의 GTX-A 건설사업관리의 진행 및 결과보고에 대한 발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GTX 사업의 성공에 일축을 담당하며 구슬땀을 흘린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초청된 강연자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유익한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19일 워크숍 둘째 날, 설계와 감리 분야별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수도사업, 도로, 단지, 수자원, 철도·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부문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팀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각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설계 및 감리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건화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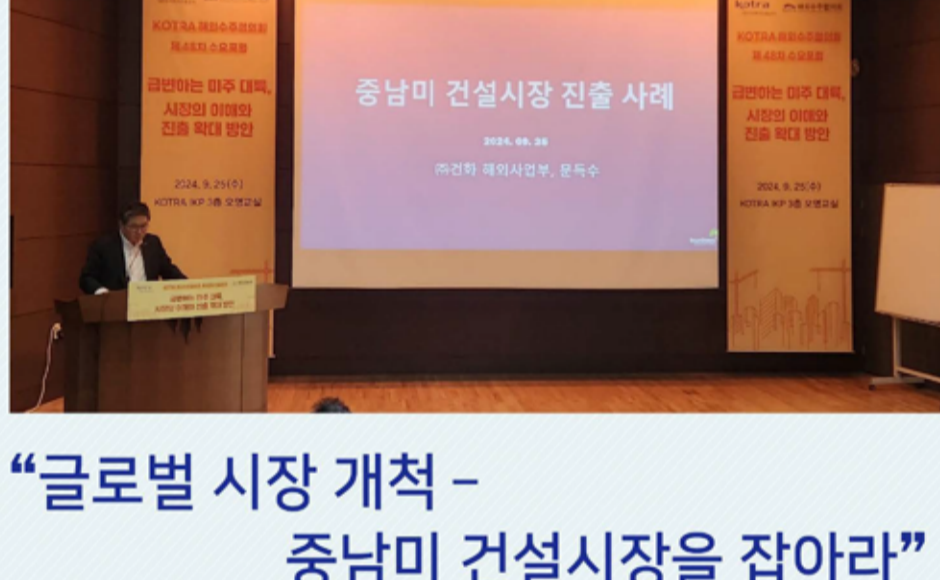


20년째 이어온 인연, 1사1촌 고구마 캐기 행사



10월 12일, 우리회사는 1사1촌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서 고구마 캐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268명의 직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족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사로 알차게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캐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Kunhwa Story



“글로벌 시장 개척 - 중남미 건설시장을 잡아라”

7월 25일, 코트디부아르 해외수주협의회 주최한 '해외수주협의회 제 48차 수요포럼'에 해외사업부 문득수 부장과 문성현 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해외건설협회의 수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남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약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남미 건설시장에 대한 다수금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의미하며, 한국 건설업계와 정부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홍보 협력 강화

6월 27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KACE) 홍보팀과 KACEM 1기 서포터즈가 우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영근 전략기획실장은 회사의 역사와 비전, 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서포터즈들은 테헤란로빌딩을 둘러보며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건화의 기술력과 인재 양성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가족친화 우수기업

- 가족의 사랑
- 기업의 배려와 열정
- 사회적 관심과 인정된 제도

▲ 가족 친화 인증 마크

[비대면 교육 시리즈]
가족중심 - 가족친화교육

건화는 매년 [비대면 교육 시리즈]의 일환으로 가족친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균형된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 친화적인 가치와 실천 방안을 배우고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건화는 가족 중심의 건강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술사 합격을 축하합니다!

상하수도2부	허강희 이사대우	상하수도
건설사업관리본부	고현재 이사	토목시공
	이근우 이사	토목시공
	정연승 이사대우	토목시공

Kunhwa Issue

미래를 향한 도약, 변화의 시작을 위한 건화 2030 TFT 구성



건화는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여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려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건화의 미래지향적인 도전과 변화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의 회사, 건화에서 함께할 신입사원을 기다립니다!

건화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을 함께 이끌어갈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화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화와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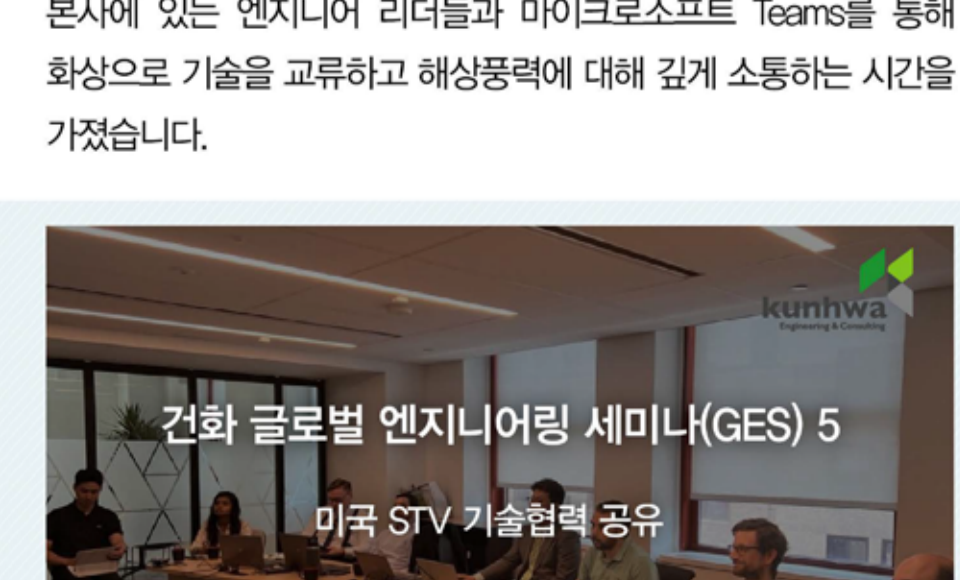


건화 글로벌 엔지니어링 4차 세미나

8월 28일, KH-GES (Global Engineering Seminar) 4차 세미나가 테헤란로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에너지환경사업부, 환경평가부, 향만부 등 유관부서 3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발표는 Venterra의 Scott Anderson 부사장과 백진호 박사가 참석해 진행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기초 설계부터 하부구조물 설계와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열린 강의와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현업에 적용되는 제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 리더들과 마이크로소프트 Teams를 통해 화상으로 기술을 교류하고 해상풍력에 대해 깊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화 글로벌 엔지니어링 5차 세미나

9월 25일, KH-GES(Global Engineering Seminar) 5차가 테헤란로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STV사와 글로벌 설계 육성 및 기술교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약 한 달간 파견을 다녀온 지반터널부의 정우철 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술 교류는 단순한 파견을 넘어, 두 회사 간의 기술 협력과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와 디지털화된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건화FC, 제12회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 참가

우리회사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20여 명이 인원은들과 함께 하고 있는 FC건화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입니다. 2002년도에 넥서스(Nexus)로 창단하여 2003년 6월에 FC 건화(FC, KUNH-WA)로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로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축구팀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제6회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저력이 있는 축구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화FC는 올해 11월 16일에 열리는 전국 건설인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주일을 흘리고 있습니다.

